

11. 「石狩川(이시카리 강) - 市町村(시읍면) 유역

大雪山系(다이세쓰 산계)를 원류로 上川(가미카와), 空知(소라치), 石狩(이시카리) 대평야를 형성하며 일본해(동해)로 흐르는 큰 강.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 속에서 거둬내는 홍수와 싸워 나가면서도 교통, 물자운송의 길로 큰 역할을 담당하며 언어잡이 등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가 아로새겨진 젓줄과도 같은 강이다. 하천 입구의 이시카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언어 그물잡이의 기술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 「江別(에베쓰)의 벽돌」 - 江別市(에베쓰시)

開拓使(개척사)는 내륙 개발 건축 자재로 벽돌을 장려하여, 홋카이도 내 8지구 17개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벽돌로 홋카이도 도청인 빨간벽돌 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명건축물을 세웠다. 大正(다이쇼) 시대 이후, 홋카이도 제일의 도자기흙 지대인 江別(에베쓰)의 野幌(노호로) 주변으로 벽돌제조 중심지가 이동. 현재도 3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시내에는 초등학교와 사료 등을 저장하는 탑 모양의 창고, 민가 등 400개 이상의 벽돌 건축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다.



13. 「홋카이도대학 삿포로농학교 제2농장」 - 札幌市(삿포로시)

제 2농장에 남아있는 모범 가축방 및 곡물창고는 1877년에 건설된 홋카이도대학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설이며, 한 채의 낙농가를 이미지한 일본 농업 근대화 모델로서 클라크 박사에 의해 구상되었다.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농업기계들은 明治(메이지) 초기의 농장 개척 당시의 수입 기계를 비롯, 근대 농업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반공개도 실시되고 있다.



14. 「開拓使(개척사) 시대의 서양식 건물 - 時計台(시계탑) 豊平館(도요히라 관), 清華亭(세이가 정자) 등」 - 札幌市(삿포로시)

삿포로시 시계탑과 도요히라관은 홋카이도 개척의 첫 정치를 담당한 개척사의 업적과 문명개화의 침단을 달린 홋카이도의 기풍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계탑은 삿포로의 심볼이며 최근에는 2층 홀이 음악회 등의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메이지 초기의 서양식 건축물로서는 和·洋(일·양) 절충형 건축물을 포함한 공업청사 清華亭(세이가 정자), 永山邸(나가야마 저택), 삿포로 농학교의 농장 건축물 등이 남아있다.



15. 「札幌苗穂地区(삿포로 나에보 지구)의 공장·기념관들」 - 札幌市(삿포로시)

삿포로시 創成川(소세이 강) 동쪽은 豊平川(도요히라강)의 伏流水(복류수)와 화물수송의 편리성 등에 의해 明治(메이지) 시기부터 산업도시로 변모하여 지금도 福山(후쿠야마) 양조장을 비롯, 다양한 공장과 창고가 모여있고 상징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 苗穂(나에보)역 근처에 있는 홋카이도 철도기술관, 삿포로 맥주박물관, 雪印乳業(유키지루시유업) 역사자료관 등은 내용도 충실하며 홋카이도 산업을 이해하기위한 귀중한 기념관들을 형성하고 있다.



16. 「小樽(오타루)항구와 방파제」 - 小樽市(오타루시)

「항만공학의 아버지」 廣井勇(히로이 오사무)에 의해 건설된 북방파제는 실론(현재의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의 방파제를 참고로 하여 독특한 경사블록공법을 채용해서 만든 일본 최초의 장대한 방파제이다. 케스법을 이용한 南방파제와 함께 지금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방파제에 의해 잘 보호되어온 오타루 항은 홋카이도 이주의 현관문이자 물류거점, 무역항으로서 상업도시인 오타루의 번영을 뒷받침 해왔다.



17. 「ニッカ(닛카)위스키 - 余市(요이치) 증류소」 - 小樽市(오타루시)

이상적인 위스키 만들기를 꿈꾸던 竹鶴政孝(다케쓰루 마사타카)는 근처에 질 좋은 토탄이 풍부하고 맑은 공기와 여름에도 기온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余市(요이치)를 그 적지로 선택했다. 닛카위스키 요이치 증류소는 1936년 팟스틸(pot still)이 붙어 정화되어 몰트 위스키의 제조가 개시된 이래 당시와 변함없는 제법으로 위스키의 증류와 저장을 계속하고 있다.



18. 「積丹半島(샤코탄 반도)와 神威岬(가무이 곶) - 積丹市(샤코탄시)

샤코탄 반도의 유구한 개발역사는 청어잡이의 고풍 어장으로 발달되었다. 협준하게 솟은 벼랑과 파란 바닷물로 형성된 神威岬(가무이 곶) 해안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절경. 귀중한 자연과 오래된 산업의 역사가 어우러져, 明治(메이지) 시대부터 昭和(쇼와) 초기까지 번영했던 청어어장의 잔존물인 番屋(파사막), 고기를 끌어올리던 흔적인 揚場跡(아게바야토), 작은 항구의 역할을 하던 袋瀨(후쿠로마), 터널, 구시가 등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가무이 곶에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등 경관을 보호하려는 활동도 시작되고 있다.



19. 「京極(교고쿠)의 솟아나는 湧水(옹수) - 京極町(교고쿠 마을)

홋카이도의 후지산이라 불리우는 蝦夷富士(에조후지) 「羊帝山」(요테이 산)에 내린 비와 눈이 녹아 여과되어 땅속의 미네랄이 첨가되어 50~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흘러나오는 은하로운 湧水(옹수). 京極(교고쿠)의 옹수는 국내 최대급이며 하루 옹수량은 8만톤으로 약 30만명의 생활 옹수량에 필적한다. 1985년에는 환경청의 「名水百選(명수백선)」에도 채택되어, 자연이 선사해준 이 맛있는 물을 구하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 「스키와 니세코 連棟(연봉) - 二七〇地域(니세코 지역)

긴 겨울동안 혹독한 추위와 눈으로 고립되어 버리는 홋카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오락은 스키였다. 1965년 경부터는 「겨울레저」로 불리면서 昭和(쇼와) 초기부터 스키장의 대표격으로서 지명도가 높았던 니세코 연봉. 오락문화가 다양해진 오늘날에도 스포츠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있다.



21. 최북단의 부나(너도밤나무의 일종)숲 - 黒松内町(구로마쓰나이 마을)

부나는 온대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로, 홋카이도에서는 渡島(오시마) 반도에만 분포한다. 구로마쓰나이는 오시마 반도의 최북단으로 태평양쪽의 長万部(오사만베)와 일본해(동해)쪽의 寿都(수쓰)를 연결하는 구로마쓰나이 저지대가 그 경계선이다. 최북단의 부나 숲에서는 자연의 고마움을 가르쳐 주는 「자연학교」의 개설 등 부나 숲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는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오시마의 七飯町(나나에 마을)에는 江戸(에도)막부 말기에 일본에 주재했던 독일인 가르트나가 심명한 부나 인공숲이 남아있다.



22. 昭和新山(쇼와신잔 산)의 국제눈싸움대회 - 壮瞥町(소베쓰 마을)

아이들의 놀이가 본격적인 어른들의 겨울스포츠로써 자리잡게 된 것은 눈의 나라 홋카이도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시합규칙·옹구의 개발부터 지금까지·기획운영까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1989년에 시작된 대회의 역사 속에서 마을 젊은이들의 정열과 아이디어는 바다를 건너, 지금은 북유럽 등 해외에서도 「YUKIGASSEN(눈싸움)」이 열리고 있다.



23. 登別(노보리베쓰) 온천 地獄谷(지고쿠다니) - 노보리베쓰시

지고쿠다니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온천지로 노보리베쓰 온천지역 최대의 원천이다. 직경 450m의 계곡에는 大地獄(오지고쿠)를 중심으로 15곳의 地獄(지고쿠)가 있어 매년 3000리터의 온천수가 분출된다. 노보리베쓰 온천은 「온천 백화점」이라 표현될 정도로, 11종류에 달하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지고쿠다니의 주변에는 표면 온도가 40~50도에 달하는 온천수 연못, 산 정상에서 흰 수증기를 내뿜으며 고산식물의 명소로 알려진 日和(히요리) 산, 노보리베쓰 원시림 등이 펼쳐진다.



24. 内浦(우치우라) 灣 연안의 縄文(조몬)문화 유적들 - 函館(하코다테)시·伊達(다테)시

우치우라 만 연안은 홋카이도와 일본 본토를 잇는 조몬문화의 교역로로서, 하코다테시 [舊南茅渚(구 미나미카야베 마을)]에서는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총괄유적인 大船(오후네) 유적을 비롯한 89곳의 유적과 정교한 옻칠제품 등 400만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테시의 北黄金貝塚(코가네 조개무지)는 조몬 초기(7000년 전)~중기(6000~4000년 전)의 유적으로 주거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예가 드문 「水場(물)이 나오는 곳」의 祭壇(제단)이 발견되었다.

